

우주를 향한 꿈! 일류우주도시 대전 청사진 나왔다

대전시, 5대 분야 20대 전략 담은 우주산업 육성 비전 선포



대전시는 29일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명실상부 우주기술혁신의 글로벌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의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우주연구기관장과 대학 총장,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장(솔태 사공영보 대표) 등 내·외빈과 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드로잉·메타버스 아티스트인 엽동균 작가의 '화성으로 인도하는 미래 우주 이야기' 공연으로 막을 연 행사는 대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 중인 우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추진 전략을 소개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비전 발표에서 절정을 이

뤘다.

이 시장은 체계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우주기술개발(연구개발) ▲우주기업 경쟁력 확보(산업육성) ▲미래 우주혁신인력 양성(인력양성) ▲대전형 우주 생태계 구축·확대(생태계구축) ▲대전 우주기업 성장기반 조성(인프라구축) 등 5대 분야 20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세부과제로 ▲대전 위성(SAT)프로젝트 ▲우주답사 등 미래우주기술 개발(연구개발) ▲글로벌 앵커기업 육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산업육성) ▲기관연계 및 맞춤형 인력양성 ▲초중고 저변확대(인력양성) ▲우주기술교류회 개최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생태계 구축)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및 스페이스 연구개발(R&D) 타운 조성(인프라 구

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제작·발사·관제가 가능한 도시인 대전의 기술적 역량을 모아 5년간 92억 원을 투입해 대전형 위성을 만들어 쏘아 올리려는 '대전 위성(SAT)프로젝트(초소형 위성 개발 및 검증)' 사업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역량을 펼칠 기회를 주어 헤리티지*를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앵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헤리티지: 기업 등의 우주발사 성공경험

이 시장은 세밀하게 마련한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 로드맵의 지향점인 2045년 화성 착륙을 대전이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비전 발표를 마쳤다.

김태선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메가충청 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대전 방문자리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조경태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호 특별위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뉴시티와 메가충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장우 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정부연합을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단기적으

로는 의회 구성과 예산 등 별도의 추진체계를 밟족시키고자 하며, 최종적으로는 메가시티로 통합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행정과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역량을 쓸 수 있도록 메가시티 법에 담아내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를 나눠서 신도시를 만들고 혁신

도시라고 부르지만, 메가시티로 커질 때 역량도 커지는 것”이라며 “고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충청’이 가장 진진하고 있다. 앞으로 충청권이 합심해 이뤄나갈 모습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 하반기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목표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규약 마련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정복 기자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 국민 실망시켜 죄송”

“유치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발전 그대로 추진…영호남 남부지역 유기적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같은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법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

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벗어간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

외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종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의명 투표로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됐다. 1차 투표 결과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 한국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였다.

이정복 기자

대전투데이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9 대동빌딩 7층

안장현 의원, “계절도 경제도 겨울, 도민 고통 덜어줘야”

비전 발표 후에는 참석 내외빈들이 모두 함께 일류우주도시 대전으로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2부행사는 우주산업 전략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우주기술혁신을 이끌 인재양성 방안(카이스트 한재홍 인공위성 연구소장), 국가 우주계획과 항우연의 역할(항우연 이준 본부장),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동향 및 전망(ETRI 유준규 실장),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우주개발 계획(STEPI 임종빈 팀장)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기업친화적 발표는 행사의 주인공인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대한민국 우주경제로드맵을 실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주 기술혁신 선도 도시로 이려면 여력을 인정받아 최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고 총사업비 973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라며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력 있게 시행하여 대한민국은 우주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일류우주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비전 달성을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으로 973억을 확보했고 지역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협업을 통한 국비 확보와 과감한 시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청권의 실업률

자는 증가했고, 특히 충남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으로 2022년 34분기 기준 1.9%였던 실업률이 2023년 3/4분기 기준 2.2%로 약 5,000명 가량 증가했다”며, “충남의 무역수지는 38억 3천만불로 전년 동월보다 약 17억 불 감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천아평(천안·아산·평택) 순환 철도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호 지사의 공약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경찰병원 분원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무회의 의결 노력을 주문하였고, 천아평 순환 철도 사업 전 전동차를 열차 시범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단순 탄소중립특별도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에 따라 도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글로벌 대학 30 탈락

김정환 기자

다음달 대전세종충남 中企경기전망지수 86.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본부장 현준)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251개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대전세종충남 일평균 86.3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업은 전월대비 16.7p 하락(전년동월과 동일한 75.0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2.0p 상승(전년동월대비 7.9p 상승한 89.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 0.8p 하락한 수치로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보였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5.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됐다.

제조업의 12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2.3p 하락, 전년동월 대비 2.4p 상승한 83.8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3p 상승(전년동월대비 7.3p 상승한 88.3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업은 전월대비 16.7p 하락(전년동월과 동일한 75.0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2.0p 상승(전년동월대비 7.9p 상승한 89.6으로 나타났다.

11월 대전세종충남 중소업체들

의 경영애로사항으로 ‘인건비 상승(71.3%)’이 가장 큰애로사항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내수부진(49.0%)’, ‘인력 확보난(45.8%)’, ‘고금리(36.3%)’, 원자재 가격상승(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복수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지난달 대전세종충남의 중소제조업 평균기준률은 74.3%로 전월 73.7% 대비 0.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배 기자

ARTVALLEY ASAN The 2nd

OPERA GALA CONCERT

2023. 12. 17. SUN 17:00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

마트밸리 아산 제2회 오페라 갤라 콘서트

티켓 무료관람 | 예매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1인 2매) | 관람연령 만 8세 이상 | 문의 041-540-2426

소요시간 약 90분(인터mission 없음, 해설 시 약 10분)

주최 주관 **아산시** **마트밸리 아산**

※ 공연 시작 15분 전까지 티켓을 수령하지 않을 시 예매한 자리를 하지 않음

※ 공연 시작 15분 전까지 티켓을 수령하지 않을 시 예매한 자리를 하지 않음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선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부 김정관)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향한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디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향한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

게 합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리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임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한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돋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정복기자

세종보 수문 정비 착수… 내년 상반기 운영 가시화

최민호 시장, 현장 방문…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일정 협의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 중 세종보 정상 가동을 목표로 수문 정비 사업에 나선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세종보 현장을 방문, 세종보 수문 정비 본격 착수를 앞두고 일정 및 계획을 접촉했다.

이날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위를 조절해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 개선에도 적극 나서 ‘2020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환경부의 세종보 수문 정비 일정에 맞춰 세종보 운영에 장해가 되는 하상 수목 제거, 치수 인증성 확보를 위한 둔치

세종=김태선기자

호안 설치 등 보수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과거 세종보 운영 시 제기되었던 낙차 소음 등 지역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금강의 수심을 확보하고, 금강을 금강답게 만들 것”이라며 “세종보 재가동이 세종시와 금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세종보 고정보에 한글 자음이 새겨진 곳으로 한화진 장관을 안내하고 세종시가 한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여러 시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청양 등 저발전지역에 충남형 공공아파트 건립” 제안

김명숙 충남도의원, 공공기관장 변경 등 도정질문 이어가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주거정책 시범사업 정책을 제언해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리브루게더 등 공동주택 사업에 지난 3년간 62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5개 시군중 6개 시군에 투자했고 홍성군에는 424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주택정책마저 천안, 아산, 당진 및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집중되는 빈익빈부의부 정책”

이라며 “공공주택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인구감소지역에 충남도가 주택균형정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청양군에 입주조건 대상을 충남도민으로 하는 선임대후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짓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주거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양을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협약하

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34억원의 부담금도 지불했으나, LH의 재무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 95억원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 부산위기 예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며, 낮은 지가로 인한 저렴한 입대료 및 분양가는 청년, 신혼부부, 디자너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장점이 될 것”이라며 “2024년 소방복합시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개원으로 수요증이 늘고 도청소재지 30분, 홍성, 공주, 보령 등 인근 시군 출퇴근 20분거리로 교통여건도 좋다”고 시범사업을 제언했다.

김정환기자



대덕구의회, 아동돌이환경

보장 공모전 의장상 시상

김홍태 대덕구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의장실에서 아동돌이환경보장 글·그림 공모전 분야별 최고 득점자 송춘초 류민서(6학년)·김정태(4·) 어린이에게 의장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공모주제인 ‘모두 즐거워했던 놀이 소개’와 ‘함께하고 뜯고 재미난 놀이’를 글과 그림을 통해 독창적이고 흥미롭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아이들은 존중받으며 성장해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대덕구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놀이권 증진’을 위한 ‘아동돌이환경보장 글·그림 공모전’을 진행했다.

김정환기자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 개정”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사에 김기윤 <사진>

1,500m로 모두 확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소 659m, 젖소 687m, 돼지 1,587m, 닭 1,573m 등이며 모든 가축에 대하여 제한 거리가 1,000m 이상인 곳은 천안, 공주, 홍성, 부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의장은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 검체를 표방하는 의회가 몇 년째 계속되는 축사육 제한 거리를 소 350m→650m, 젖소 400m→1,000m, 돼지·닭 900m→

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며 “해북은 숙제 해결을 위해 주민 대표기관의 의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하였으며 의원들과 논의 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심사 한 결과물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군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앞서 관내 축산농가와 여러 치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충남 축산의 1번지 홍성군은 지난 2018년 9월 기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으며 경북 영천은 올해 6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

한편,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대덕구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놀이권 증진’을 위한 ‘아동돌이환경보장 글·그림 공모전’을 진행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주재로 29일 3층 소통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카이스트 공과대학융복합연구센터 장호종 교수(지역 사회에서의 김영병 예측 및 차단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함께 소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카이스트 공과대학융복합연구센터 이체석, 이우근 2명의 선임연구원과, (주)듀얼헬스케어 김영이 대표, (주)울바이오 김정훈 대표, (주)남은공간 대표, 대전디자인기업협회 남승범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기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 위원회 권오중 위원장



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600원, 청소년 1,280원, 어린이 800원으로 서울, 경기 등 주요 광역시와 비교하여 성인은 100~400원, 청소년은 80원~380원, 어린이는 100원~400원 높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22년 시내버스 운행 민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 속도 난폭운전과 급출발, 급정지 등에 대한 불만 응답은 무려 76.5%에 달했고 배차시간, 친절도 등의 항목 또한 높은 불만족 수치를 보였다”라며 높은 요금에 반

해 낮은 서비스 만족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은 2021년 442억, 2022년 484억, 2023년 412억으로 많은 운행 및 손실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가진 시내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버스업체 운수업자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 양성평등 정책대상 수상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여 년의 생활정치를 기반한 여성정책의 의제 발굴과 우수한 사례로 지방자치에서 우수한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고 공로가 있는 지방 의원의 우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연숙 의원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페더풀 예방 정책 실현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및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수의 토론회 및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페더풀 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이번 수상이 앞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양성평등은 여성, 남성 둘다 우리 모두의 사회적인 문제이며, 여성과 남성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출범식… 새로운 출발

국민의힘 이신을 당원협의회

국민의힘 이신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전민경)가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당진시의회 청년위원회 의장이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분야 주최하고 양성평등 정책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제1회 양성평등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 분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진시의회 청년위원회 의장은 지난 28일 의장실에서 아동돌이환경보장 글·그림 공모전 분야별 최고 득점자 송춘초 류민서(6학년)·김정태(4·) 어린이에게 의장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공모주제인 ‘모두 즐거워했던 놀이 소개’와 ‘함께하고 뜯고 재미난 놀이’를 글과 그림을 통해 독창적이고 흥미롭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아이들은 존중받으며 성장해야 할 권리가 지니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청년위원회장에는 장철희 대성테크아이산 대표이사가, 신임 여성위원회장에는 서정화 전 민간 어린이집 정책 이사가 임명됐다.

2023 서천철새여행 12월 1일 열려

노을 · 갈대 · 철새 · 가을을 떠나보내기 아쉽다면 충남 서천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새들의 휴식지 금강하구와 서천갯벌 일원에서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2023 서천철새여행'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

갯벌'과 금강하구에 넓게 펼쳐진 '신성리 갈대밭'으로 유명한 서천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사계절 철새들이 쉬어가는 중요한 기착지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노을이 불

어진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몽환적인 가창오리 때의 군부와 'V'자 형태로 편대비행 하는 기러기들의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이수 위하는 많은 관광객이 자연이 선물하는 아름답고 흥상적인 풍광을 감상하기 위해 서천을 찾는다.

오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서천철새생태전시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서천철새여행 페스티벌은 국립생태원이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15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철새와 관련된 다채로운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철새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탐조체험은 장항을 장암리 일원에서 시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을 본격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탐조부이는 현장에서 응모권

을 받아 오는 1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29일과 30일 오후 2시에는 2023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영화 '수리'를 상영할 계획이며, 29일 영화 상영 후에는 황운 영화감독과의 함께하는 미니토크가 이어진다.

김기웅 군수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철새여행 행사를 4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다"며, "행사를 주관한 서천철새여행추진위원회 신상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름다운 서천의 자연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행사기간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펼쳐진 생태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서천광역 버스투어(02-2645-1664)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의회 '제2차 미래과학 혁명시대 혁신교육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2월 6일 이재경 의원 주재로 두 번째 논의 예정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주재로 12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제2차 미래과학 혁명시대 혁신교육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적협동조합 넥스트 클럽(대표: 남승제)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5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앞두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에 대한 혁신교육 등의 대비 전략을 찾고자 마련된 두 번째 자리로, 1차 토론회는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발제자는 KAIST 이광형 총장으로 '인공지능시대 우리의 전



학'을 주제로 발제 할 예정이며, 토론자는 강영환 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지방 투자산업 발전

위원장, 김정경 충남대 교수(총장 당선자), 김진수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남승제 사회적협동조합 넥스트클럽 대표,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 최동연 건양사이

버대학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경 의원은 "1차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전시켜 5차 산업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토론과 연구를 거쳐 과학수도로서 대전의 위상을 확립하고 과학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교육의 미래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보부상박물관, '입체경 만들기' 체험 교육 만족도 '최고'

옛 조선의 장시 모습 담은 입체경 만들기 체험 성황리에 마무리

예산 보부상 박물관은 '장날!' 보부상 만나러 가는 길' 특별 전시와 연계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입체경 만들기' 체험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체험은 특별전 전시 유물 중 하나인 입체경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입체경의 원리를 배우고 옛 장시의 모습과 보부상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했다. 11월 11일과 25일 2일간 총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들은 '옛 장시의 모습과 보부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관광 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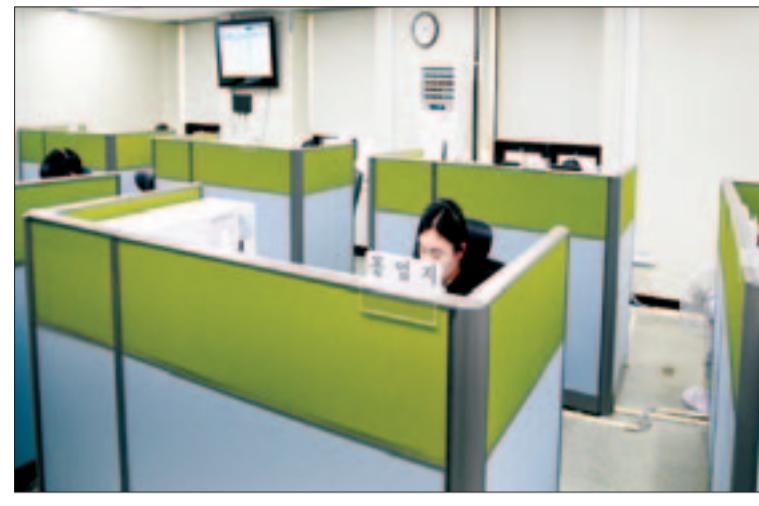


해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장시와 보부상에 대한 역사를 되짚어보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관람객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희 기자

조폐공사, 고객 중심 경영 나선다

성창훈 사장, 임직원 고객중심 마인드 강조



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국민이 원하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특허청 국민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DEARO)'를 통한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하고 있다. 창신한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도에는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으로 '보안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은원카드 사업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조폐공사는 고객만족 TF 출범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한 사업군별 이슈 키워드를 찾아내고, 다양한 이슈의 중요도·긴급도를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책을 찾은 후 개선 진도율을 함께 확인하며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성창훈 사장은 "조폐공사는 디지털 전환의 경계를 넘어 조폐가 산업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기반의 ICT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고객의 소리는 필수불가결 한 요소"라며, "고객 입장에서 편리한 응대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임직원 스스로 고객중심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자"고 말했다.

승병배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co.com)는 고객 최집집인 콜센터 개선에 나섰다.

2008년 첫 도입된 콜센터는 최근 지역결제플랫폼 'chak'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용 회선을 늘려 고객 응대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AI 보이스봇 상담 시스템도 출범한다. 자연스러운 음성 명령어로 보이스봇과 대화하듯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어 단순질의는 빠르게 응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폐공사 콜센터는 타 콜센터처럼 복잡한 경로 찾기 없이 대기 후 상담원 연결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보니 상담원 연결까지 디소 대기 시간이 걸리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

해 12월 중 문자 상담 전용라인을 개설하고, 내년에는 홈페이지 챗봇 상담을 오픈한다는 목표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특정 인기 제품 판매 시 동시에 따른 서버운영 문제로 종종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과 함께 선착순 판매를 추첨 판매식으로 바꿔 고객들이 공정성 있게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사업부문에서는 고객 의견을 제품과 신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2024년도 기념메달 신제품 출시 시 고객이 원하는 제품 출시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는 신제품 지분위원회의 를 거쳐 2024년도 최종 신제품 출

(주) 원전 김지훈 회장, 대전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 기부



명문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을 운영하는 (주)원전 김지훈 회장이 29일 대학 30주년 기념관에서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했다.

김지훈 회장(79세·사진)은 "황홀 불우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전대와 인연을 맺어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대는 기부된 발전기금은 대전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경북사대부고와 경희대 상학과를 졸업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소재 대학의 대학원에서 경영·언론·행정학을 수료했으며,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고양시립의회 회장, 문경시 재경향우회 회장, 문경시 신망애유원 이사, 재향경우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했다.

김지훈 회장은 1970년 9월 4일

동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 1991년 10월 1일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하여 운전면허 교육기관으로서 39년간 30여만명의 운전자를 양성하여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명예회장 재직시 전문학원의 현대화와 투명한 학원 운영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본 및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전문학원제도에 대한 연구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500여 개 학원을 질적으로 향상 시켰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자동차운

전학원 운영자 20여 명을 초청,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공적으로 치안본부장 및 경찰청장의 감사장, 대만 황금사자대상 장장(081), 국민훈장 목련장, 체육훈장 거상장 수훈 등 다양한 훈·포장을 받았고, 22년 11월에는 '글로벌미래선도 우수기업인 대상'을 세미나에 참석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으로부터 받았다.

김정환 기자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대전을 가치있게!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암대로 28-29 대전빌딩 7층



희망 2024 나눔캠페인 2023. 12. 1(금) ~ 2024. 1. 31(수)



참여방법

① 방송사 기탁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전지회)

KBS대전	하나은행 602-910185-07805
대전MBC	농협은행 317-0001-3779-61
TJB대전	농협은행 477-01-023771

② 사랑의 계좌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전지회)

하나	625-363399-00104
농협	477-01-004674
국민	474-01-0031-926
우체국	312710-01-000723

③ 온라인 모금

- QR코드를 통한 기부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순회모금 일정

대전시	2023.12.05 (화) 10시	대전시청
동구	2023.12.06 (수) 14시	동구청 12층 대강당
중구	2023.12.08 (금) 15시	중구청 2층 대회의실
서구	2023.12.13 (수) 14시	서구청 대강당
유성구	2023.12.12 (화) 14시	유성구청 지하 대강당
대덕구	2023.12.11 (월) 14시	대덕구청 청렴관



●정정●

김장 나눔 행사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30일
오전 9시 30
분 꿈나래교
육원에서 열
리는 2023년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

건립공사 기공식



박희조 동구청
장= 30일 오
후 3시 30분
동구 가양동
707번지 일원
에서 열리는
생활SOC기족센터 건립공사 기
공식에 참석.

미약중독예방 뮤지컬



서철모 서구청
장= 30일 오
후 2시 관저분
예회관에서 열
리는 서구 학
생들을 위한
미약중독예방 뮤지컬 참석.

유성구 과학정책 포럼



정용래 유성구
청장= 30일
오후 3시 구
청 대회의실
에서 열리는
대덕특구 50
주년 기념 유성구 과학정책 포
럼 참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최종규 대덕구
청장= 30일
오전 11시 대
회의실에서
열리는 통합
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동구 용전초 통학로 개선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용전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를 정비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전초등학교는 후문 통학로가 좁아 차도를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으로, 등·하고 시간에 시간제 차량 진입 금지를 시행 중이지만 안전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이에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용전초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를 1.5m에서 2.6m로 확장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했다.

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횟단보도'가 설치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용전초 후문에 노란색 횟단보도 2곳을 설치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좁은 통학로로 불편을 겪어 있던 용전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市, 2023 매출의 탑 시상·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오늘의 대전 기업인들 땀과 노력의 결실”

대전시는 29일 유성구 도룡동 호텔 ICO에서 '2023년 매출의 탑 시상 및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장우 대전 시장을 비롯해 이성래 대전시의회 의장, 이병철 대전시의회 산건 위원장,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위원,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해 수상기업들을 축하했다.

매출의 탑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1백억 원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1백억 원~8백억 원, 1천억 원을 달성한 총 22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린

1천억 원 부문 수상에는 태원건설산업(주) 박재현, 공동주택 등, 주금영이엔지(주)승호, 제습기 등, 영인산업(주) 권진오 토목건설업)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차순위 매출액인 8백억 원 부문에는 로쏘(주)가, 5백억 원~7백억 원 부문에는 대용건설(주), 주) 소프트아이텍, 주위드텍 등 3개 기업이 인증서를 받았다.

유망중소기업은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전에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중 성장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올해는 51개 신청기업 중 17개 기업이 선정됐다.

매출의 탑 수상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3%의 이자 치액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시 3%의 이자 치액을 지원받으며, 국내 및 해외 마케팅지원 사업에서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의 대전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준 기업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라며 "대전을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일류경제도시로 일궈 우리 기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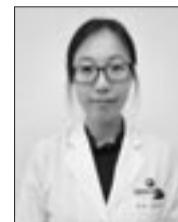
김태선 기자



대전동 구새마을회, 새마을운동기초과정(70기) 교육 대전동 구새마을회(회장 임진수) 소속 협의회, 부녀회, 문고, 새마을지도자 29명은 지난 28일 오후 동구새마을회관 4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새마을국민교육(온라인) 새마을운동 기초과정(70기)을 수료했다.

충남대병원 약제부 정희정 약사

병원약사대회 미래병원약사상 수상



충남대학
교병원(병원
장 조강희)
약제부 정희
정 약사(사
진)가 최근
한국병원약

사회가 주관한 2023년도 병원약
사대회에서 '미래병원약사상'을
받았다.

미래병원약사상은 최근 학술 활동을 통한 공포가 뚜렷한 만 45세 이하 병원약사 중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회원 10명을 선정해 병원약사대회에서 시상하는 분야이다.

정 약사는 2010년부터 충남대
병원에 근무하며 병원 약제 업무
승병배 기자



유동노인복지관, 한전MCS(주) 서대전지점과 후원물품전달식 및
봉사활동 진행 대전유동노인복지관(관장 박명래)은 한전MCS(주)
서대전지점(지점장 염화섭)과 29일 유동노인복지관에서 후원물품전달식을
진행했다. 한전MCS(주) 서대전지점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
해 써달라며 컵라면 100박스를 유동노인복지관에 기탁했다. 기탁된 물품은 후
원자의 뜻에 따라 우리지역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어르신들 및 취약계층 어
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 이후에는 한전MCS(주) 서대전지
점장은 비록한 직원들이 복지관 도시락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어르신
들에게 찾아온 도시락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 놀 권리 보장 앞장선다

대덕구, 아동 놀이환경보장 공모전 시상식



대덕구구청장 최종규는 지역 아동들의 놀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공모전 '모두 즐거운 놀이, 함께 재밌는 놀이터'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과 그림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지난 9월 18일에 서 10월 31일까지 그림 154건, 글 75건, 총 229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놀이 환경 보장 공모전에 참여해 재능을 뽐내준 모든 아동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 친화 대덕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유성구 논골어린이공원,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완료하고 준공식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28일 논골어린이공원에서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골어린이공원은 4개 공동주택 주거단지 내 위치하여 유동인구와 공원 이용자가 많은 공간으로, 조성된지 20여년이 지나 노후된 휴게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새롭게 조성한 공원은 대형 네트놀이시설 등 놀이시설물 5종과 주민커뮤니티공간, 디자인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새롭게

바뀐 공간으로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의 역사와 시정현황 등 소개

천안중앙고 초청 '천안학' 특강

박상돈 천안시장은 29일 천안중학교에서 2024 대 학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천안학 특강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천안의 역사와 시정현황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했다. 특히 풍부한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시 시정 방향과 미래비전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2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내년이면 각자의 꿈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천안중학교 초청으로 추진됐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세미스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사랑하우스' 현판식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장옥)는 29일 세미스(주)(대표이사 정태경)와 함께 1인 중장년,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97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하우스' 현판식을 개최했다.

세미스는 1억 원을 투입해 주거취약 97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교체, 화장실 수리, 싱크대 교체, 창호 설치, 도배·장판 등 각 기정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또 겨울철을 대비해 대상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구매한 방한용품 등을 전달했다.

세미스 관계자는 "매년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주택 개보수가 꼭 필요한 취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을 보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옥 센터장은 "매년 세미스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새론오토모티브(주), 천안시 취약계층 위해 1000만원 기탁
새론오토모티브(주)(대표이사 정경호)는 지난 28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후원금 1,0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에 기탁했다.



함께하는 시장발 천안자부, 성정1동에 식료품 100박스 나눔
성정1동(동장 김경우)은 29일 (사)함께하는 시장발 천안자부(지부장 한미영)가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꾸러미 100박스를 기탁했다. 햇반, 스팸, 즉석 국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는 겨울철을 맞아 한파에 취약한 쪽방기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광대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 3회 연속 선정

천안시, 2026년까지 3년간 우수민원실 인증 유지

천안시는 2023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3회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12개 신규 인증과 27개 재인증 기관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2016년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과 올해 재인증 기관으로 지정돼 2026년까지 3년간 우수 민원실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천안시는 그동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매주 월曜일 야간민원실 운영 등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 전용창구 운영과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및 큰 활자 민원서식을 제작·비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

도를 시행했다. 스마트 통합순번 대기시스템 구축, 무료법률상담소, 모유수유실·임산부 쉼터, 기족화장실을 설치해 방문 민원인 만족도를 높였다.

더불어 북카페, 청사 로비 각종 전시회 및 작품 발표회, 공연 개최 등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기도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원인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정
구축 최종 보고회



박상돈 천안시장
= 30일 오후 6시30분 천안타운홀에서 열리는 '천안타운홀 미디어 아트 구축 최종 보고회 및 시연회'에 참석.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혜경)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대표협의체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회 보고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조정된 안건 등이 상정됐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실행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접경 및 연차별 시행계획 TF 회의, 주민공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실행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접경 및 연차별 시행계획 TF 회의, 주민공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기구로 천안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이행·결과를 관찰하는 등 천안시 사회보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청룡동, 낙상·화재사고 예방 위해 안전물품 지원

천안시 청룡동 행복기움지원단(단장 이문자)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집(Safe Home)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기움지원단은 겨울철 낙상·화재사고 발생률이 높아집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미끄럼방지 양말, 낙상 방지 테이프, 손운동 도구 등을 전달했다. 또 화재 위험 기구에는 겨울철 화재예방 방법을 교육하고 가정용 소화기를 지원했다.

개별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문자 단장은 "어르신 분들의 안전을 지켜 드릴 수 있는 물품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의용 청룡동장은 "겨울철 가정 내 낙상과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통해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노사민정,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본회의 개최… 공동선언으로 상생 노사문화 정착



로 합의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인

'2023 여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천안시,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 위해 실시

천안시는 지난 28일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아리아오 광장에서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기족과성상담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함께 만드는 여성

캠페인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메시지 전달,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등 통해 여성폭력이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계기로 여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최 및 작업절차 준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산업현장 위험요소 개선 및 취약계층 노동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실천 과제로 담겼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노사민정 각 분야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동선언문에는 ▲안전보건수



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 천안' 조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25일은 도미니카공

화국의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요에 맞서 투쟁한 미라발 세 자매를 기리기 위해 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아동복지분야 실천사례 공모전' 2개 부문 우수상 수상

드림스타트 이동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우수상

천안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아동복지분야 실천사례 공모전'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드림스타트 사업 전문화·특성화 과정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드림스타트 현장에서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드림스타

트이동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2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끌었다.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드림 허스 스쿨'이라는 선생님이 좋아요!'은 프로그램 기획·운영 부문에서 취약계층 아동과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드림 허스 스쿨은 취약계층 아동

대 1 학습·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아동 210명에게 총 4,667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례관리 부문에서는 김묘정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사례 관리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지해 가정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가 프로그램 부문에 이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아동복지

분야 실천사례 공모전 프로그램 부문에서 '이마을 토닥토닥 상담 캠페인'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예술축제' 두번째 기획전 '한국영화 100년전(展)' 개최

성성호수공원 UCC몰서 기획전…12월 17일까지 영화 60점 전시



천안시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천안예술축제' 두 번째 기획전으로 '한국영화 100년전(展)'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천안시, 한국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 예총')·(주)비제이글로벌이 체결한 UCC Urbane Creative City 단지 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한국예총, 비제이글로벌과 천안예술제 첫 번째 기획전 '대한 민국시진축전'에 이어 두 번째 기획전 '한국영화 100년전(展)'을

중에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천안시가 고품격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방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

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문자 단장은 "어르신 분들의 안전을 지켜 드릴 수 있는 물품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의용 청룡동장은 "겨울철 가정 내 낙상과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통해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제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만의 노하우!



삼성전자운양사업장 기초소방시설 기증식기록 이산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지난 29일, 삼성전자(주)운양사업장으로부터 주택용소방시설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지역의 대형기업체에서 화재취약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고 자사회공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천안동남소방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화재예방 캠페인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오경진)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화재 위험에 높은 겨울철을 맞아 범국민적 화재예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온천2동 새마을부녀회, 따뜻한 겨울 선물 전달 대전 유성구 온천2동(동장 원종덕)은 29일 온천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유미숙)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사랑의 김'(50박스/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훈청, 국가유공자 유족 가정에 명패 달이드리기 실시 국가보훈부 강민희 대전지방보훈청장(원쪽)이 지난 28일 충남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 인정을 받은 고 조남익씨의 배우자와 친구를 방문해 직접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달아드리고 있다.

청양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매체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통화 외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119누리집,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19에 위급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 메시지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 효과적이다. 휴대폰 화면에서 119를 입력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 신고 내용이 119상황실로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앱 신고는 휴대폰에 '119신고' 앱을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가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자신의 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119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를 원할 경우 119로 영상통화를 발신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보령소방서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홍보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29일,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가상현실에서 화재, 재난 등의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이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융합해 현실에서의 위험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다.

'메타버스 119안전교육'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화재·지진·태풍·응급처치 체험 ▲소방차량·소방헬기 탑승 체험 ▲구조·구급장비 전시 공간 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충남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20개 응급실과 협력

충남도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감시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도내 응급실 운영기관 20개소가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및 한랭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및 동상·동창·침수병·침족병 등이 있

(모니터링)해 한파의 건강 영향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수집된 한랭 질환 발생 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및 동상·동창·침수병·침족병 등이 있

다.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날씨 정보(체감온도, 등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기관적 야외활동을 줄이며,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걸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으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 실내는 적정온도·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은숙 도 보건정책과장은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 청의 전망에 따라 도내 참여 의료 기관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한파 건강 피해 감시를 강화하고 발생 현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방안전 투자소요 급증 관련 예산 확충해야

교부율 인상, 신규 과세 등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교부율 인상, 화재 관련 신규 과세 등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 연구책임 : 한재명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당 재원이 투입되는 소방과 안전 분야 모두 투자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투자소요 증가에 대응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후 3년간 (2024~2026) 대상사업의 연평균 투자소요액은 소방분야가 3,721억 원~6,755억 원, 안전분야가 1조 7,36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 두 금액은 향후 예상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및 안전 분야 평균 사업비 각각 3,022억 원, 877억 원에

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의 신장성 확보, 소방안전 분야 신규 재원 확보 그리고 미래 투자소요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원의 신장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을 인상하거나 보통교부세와 같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재원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방안전 분야 신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신규부담금과 교통비반에 대한 법적금 및 과태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미래 투자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시·도의 담보소비세 법정전출금 일부를 기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도 소방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한재명 연구위원은 "소방과 안전 분야 모두 투자소요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장성이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신장성을 높이거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소방안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돋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구기자

논산소방서, 구급인력

기간제근로자 모집

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후직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출동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구급인력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119구급차에 탑승해 주저치자(소방공무원)를 도와주는 보조처치자로서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3조 1교대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근무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다.

접수 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소방행정과(☎ 041-730-0215)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성구기자

daejeontoday.com

당진소방서, 겨울 김장철 맞아…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화재안전수칙 홍보



며, 이로 인해 1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60여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자제품에 묻은 오염물질을 따라 전류가 흐러 텐화가 일어나는 '트래킹 현상' 및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치냉장고 화재안전수칙은 ▲습한 곳,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기 ▲온센트는 김치냉장고 단독으로 사용하기 ▲전원코드 및 전선이 파손되지 않도록 벽면과 거리를 띠워두기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받기 등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열차운행시험 위한 전차선 가압 추진

복선전철 신창~홍성 구간 전기 공급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본부장 김윤양)는 장항선 복선전철 1단계 신창~홍성구간(36.35km)의 주요공사를 완료하고 29일 오전 1시부터 전차선로에 열차운행시험을 위한 전기(2만5천V)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충청본부는 전차선로에 2만 5000V 특고압 전기가 공급되면 감전사고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인근 학교·아

파트 단지에 현수막 설치 및 안전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

김윤양 본부장은 "장항선 복선전철 1단계 신창~홍성 구간의 전차선 가압을 시작으로 차량부입을 통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절차히 시행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로변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승병배기자

대전 동구 천동파출소 신청사, 이전·개소식 개최



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14일에 완공되었다.

이번 개소식은 ▲신축 개요 보고 ▲유공자 포상 ▲동부경찰서장 시사 ▲대전경찰청장 격려사 ▲내빈 축하 ▲현관 제막식 ▲케이크 커팅식 ▲기념 활영 순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청사에서의 첫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은 "그간 성공적 개소를 위해 노력해 온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며 "출발을 하게 된 만큼 경찰의 존재이자 명예로운 사명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전경찰이 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승영 청장은 "새롭고 고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새 출발의 힘찬 각오를 다지며, 계속해서 '가장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유성구구즉동새마을부녀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천연비누만들기" 유성구구즉동새마을부녀회(회장 임은자)는 지난 28일 구즉동 한마을경로당과 효문화 주간보호센터에서 마을 어르신들의 취미활동으로 천연비누만들기 일정을 열었다.

대전교육청, 학교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 성료

초·중·고·특수학교 307교 395개 동아리, 학생 4,093명 참여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에듀힐링센터는 또래코칭 동아리가 올해 첫발을 내딛고 한뼘 성장하며 2023년 운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에듀힐링센터는 올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스승존경·제자사랑 문화 실천을 위해 모든 학교에 또래코칭 동아리를 새롭게 선보이며 운영하였다.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스쿨코치 114(또래코칭 지원단) 위촉 ▲또래코칭 동아리 지도교사 사전 연수 ▲또래코칭 매뉴얼(하루 한 장 코칭 비타민) 배부 ▲학교별 200만원 예산 교부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단위 학교는 또래코칭 교육 프로

관내 모든 학교는 지난 3월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을 위해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 한해 내실있게 운영하였다.

학교별 또래코칭 동아리 개수는 초등학교는 200개, 중학교 111개, 고등학교 74개, 특수학교 10개로, 총 395개의 동아리가 운영되었고 학생 4,093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단위 학교별 특색에 맞게 2개 이상의 동아리를 운영한 학교도 있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에듀힐링센터는 또래코칭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스쿨코치를 전국 단위로 공모하여 114명을 위촉해서 지구별로 매칭하여 안내하였다.

이후 단위 학교에서는 또래코칭 동아리에 참여할 또래코치를 선발하고 매칭된 스쿨코치를 활용하여 또래코칭 기본 교육과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때 스쿨코치는 또래코칭 매뉴얼(하루 한 장 코칭 비타민) 등을 활용하여 코칭 철학, 코칭 개념, 코칭 스킬, GROW 모델을 활용한 코칭 대화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단위 학교는 또래코칭 교육 프로

그램 이외에도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도 학교 특색에 맞게 계획하여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또래코칭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또래코칭 리더십 캠프, 감수성 함양을 위한 코칭을 접목한 밴드 동아리 운영, 응원과 존중의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청찬 Day, 행복한 응원 Day, 사과 Day, 어울림 한마당,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책·영화 등을 활용한 공감 능력 신장을 위한 또래 활동,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또래 협업 프로젝트, 진로코칭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일상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해결을 위한 또래코칭 활동, 비른 인성 향상을 위한 또래코칭과 함께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교육 활동도 더해졌다.

에듀힐링센터는 또래코칭 동아리 활동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또래코칭 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전, 또래코칭 동아리 체험마당도 실시하였다. 우선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총 49개 학교의 또래코칭 동아리 지도교사가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운영 사례로 응모했다. 심사 위원들은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특색있게 운영한 지도교

사 16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교사는 교육 표창을 받게된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에듀힐링센터 나눔마당(대전미래교육박람회 연계) 또래코칭 체험마당에도 대전동문초 '너나들이', 대전서부초 '너랑 나랑 함께하는 또래코칭', 대전갈마초 '갈마 키즈 힐링카페' 동아리가 참여해서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또래코칭 활동을 선보였다. 또래코치들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배운 코칭 대화를 나누며 코치로서 한뼘 더 성장하였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예방프로그램으로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을 모든 학교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으로 존중과 소통의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의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라며 "그리고 올 한해 학교 현장에서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하며 전해온 다양한 의견들도 2024년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육활동보호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사 중 희망자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연수



교육 관련 활동을 통한 실전 기술 활용 법에 대해 강의가 진행했으며, 강의 후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열정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도 큰 교사들로 구성된 전문적 학습공동체 '목요일에 만나요' 공연도 이어졌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번 연수로 비누로 만나는 직업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연수를 통해 배운 비누 만들기 및 활용을 특수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숙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관내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당진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학생 마음나무 키우기 어울림 마당' 힘찬 시작

충남교육청, 중학생 대상 회복탄력성 증진 심리치유 프로그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통해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3 학생 마음나무 키우기 어울림 마당'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3 학생 마음나무 키우기 어울림 마당'은 중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12월 2일(토)~3일(일)은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12월 5일(화)~6일(수)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부모교육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차는 도내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7일(월)~28일(화) 1박 2일간 공주시 소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회복탄력성 증진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해와 접점 ▲미술치료, 놀이치료, 꿈치료, 긍정심리학 웹동치료 등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 정립을 돋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정환기자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 교육센터

한국어학급 운영 역량 강화 배움자리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원장 김연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는 29일부터 25일까지 다우리 배움교실 원격교원 21명을 대상으로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및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서 한국어 교육 교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도역량 강화 및 생태 환경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연수 1일차인 23일에는 신제주외국

문화학습관을 방문해 학교와 혼중의 다문화 이해 교육 이해라는 주제로 다문화 학생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펴았고, 질의 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충청남도 국제교육원 김연화 원장의 '한국어학급 운영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튿날은 세계지질공원 동백동산생태습지센터를 방문해 제주도 습지에 대한 소개와 체험을 진행했고, 우도 탐방을 마지막으로 연수를 종료했다.

신창면 '우리동네 열린 아카데미' 실시



및 외국인 문화의 이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동심과 역량 강화를 주제로 신창면 주민자치회 활동 중 24년도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안건 발굴·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 실무 및 마을행사 기획과 연출·방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성재경 주민자치회장은 "올해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충남도 주민자치회 한미당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며 "내년에도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주민자치회 위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김정환기자

아산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추진 협의회 개최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아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박정식(교육위원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는 도의원, 시의원, 학부모대표, 지역주민대표, 학교 교직원대표, 교육청 및 아산시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금년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향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아산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아산은 개발지역이 많아 학교 신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반대로 개발지역에서 소외된 일부 지역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실

정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협의체의 박정식 위원장은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에 종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지역여건에 맞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작은학교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서우 교육장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협의체가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산지역 대표로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높이는 방법 찾다

공주교육지원청, 2023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 운영



설유치원 교사는 유치원에서 다수 문의한 사례로 유치원 현장의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답 형식의 연수로 3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했다.

유치원 현장의 객관적 평가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 이번 연수는 공주 관내 국·공·사립 유치원 30개 원에서 대부분 도입되어 적용 실현하고 있는 유아 나이스 생활기록부의 기본 인적 사항부터 평가 내용 입력 등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내용을 구체적인 현장 적용 사례를 들어 안내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유아의 성장 변화 및 발달, 배움의 과정을 관찰·평가하는 누가기록의 연계가 객관적인 신뢰도의 확보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공주=정상범기자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노마드 칼리지 인문교양학부는 지난 25일 교내에서 '제14회 대학생 토론회'를 결선을 진행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대학생 토론회'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국립한밭대학 학생들의 견전한 토론문화 정착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2019년 이후

토론회 주제는 전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를 감안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를 논제로 하였고, 이에 각 팀은 환경 문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통찰과 해법을 심도 있게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했다.

본 토론회는 전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를 감안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를 논제로 하였고, 이에 각 팀은 환경 문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통찰과 해법을 심도 있게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했다.

아산 신창면(면장 김인우)이 지난 28일 "우리동네 열린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신창면 주민자치회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동네 열린 아카데미"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신창면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 지원재활용, 다문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공주시, 2020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민원서비스 만족도 우수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공주시가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 운영 우수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주시는 2017년 처음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후 2020년에 이어 2회 연속 재인증된 것으로, 인증 기간은 올 12월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총 3년이다.



다음달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78.8, 전월대비 1.9p 하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21일 30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대비 1.9p 하락한 78.8(3.7)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보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12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3.6p 하락한 80.9이며, 비제조업은 1.2p 하락한 77.8로 나타났다.

건설업(78.2)은 전월대비 2.6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7.8)은 전월대비 0.8p 하락했다.

제조업에서는 기기운송장비(88.6→96.0, 7.4p↑), 기기기계 및 장비(83.9→88.8, 4.9p↑),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85.6→87.5, 1.9p↑)을 중심으로 6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의료용물·질병의약품(102.0→89.3, 12.7p↓),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97.3→87.6, 9.7p↓), 음료(95.1→85.6, 9.5p↓), 식료품(101.0→91.6, 9.4p↓) 등 17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0.8→78.2)이 전월대비 2.6p 하락했고, 서비스업(78.6→77.8)은 전월대비 0.8p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86.4→89.6, 3.2p↑),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6.5→87.8, 1.3p↑) 등 3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 가족서비스업(79.6→67.1, 12.5p↓), 부동산업(80.1→75.4, 4.7p↓) 등 7개 업종은 하락했다.

내수판매(80.4→78.7), 수출(81.3→79.9), 영업이익(77.1→76.8), 자금사정(77.8→77.0)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역계 열 추세인 고용수준(94.7→94.8)도 전월 대비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12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자금사정, 원자재, 설비는 개선된 향후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수출 전망은 악화된 한편, 내수판매는 보합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내수부진(6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46.6%), 업체간 과당경쟁(34.3%), 원자재 가격상승(3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수부진(59.1→61.8), 인건비 상승(46.2→46.6), 판매 대금회수지연(18.8→19.0) 등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업체간 과당경쟁(35.0→34.3), 고금리(25.2→25.0), 원자재 가격상승(35.6→34.2) 등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지난달 중소제조 업 평균가동률은 72.8%로 전월대비 0.1%p 하락했으며,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9.3%→69.4%)은 전월대비 0.1%p 상승했으며, 중기업(76.9%→76.6%)은 전월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71.9%)은 전월대비 보합으로 나타났으며, 혁신형 제조업(75.2%→75.0%)은 전월대비 0.2%p 하락했다.

송병배기자

대전식약청 의약품 시험·검사 전문성 강화 지원

중부권 4개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의약품 시험분석 전문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 지방식약의약품안전청은 29일 대전식약청(대전 서구 소재)에서 의약품 시험·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충북·충남·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의약품 등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중부권 의약품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분석이론 '대한민국약전' 중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을 이용한 분석 실습 ▲의약품 시험분석 효율화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번 전문교육은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에 대한 이해와 의약품 시험·검사 관련 기술을 지원해 의약품 시험·검사 기관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정 대전식약청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분석역량 향상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험·검사 업무는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는 토대인 만큼 전문성이 확보된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는 행정을 바탕으로 관내 보건환경연구원과 의약품 기술 교류와 소통의 자리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2023 따뜻한 동행 송년콘서트' 열려

동물원·자전거 탄 풍경·김희진 출연 포크 콘서트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따뜻하고 감성 가득한 노래와 함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2023 따뜻한 동행 송년콘서트'를 오는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 무대에 올린다.

서정적인 가사와 잔잔한 음악으로 마음을 울리는 그룹 '동물원'과 깨끗하고 순수하며 편안한 음악으로 명실상부 포크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자전거 탄 풍경', 그리고 포크그룹 '라나 에 로스포'

로 베�풀해 7080 포크계의 아이유로 불리며 칭아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김희진'이 출연한다.

김정환기자



예산군 수도과-홍성군 수도사업소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지자체 상하수도 업무 상호협력 강화 기반 마련

예산군 수도과는 홍성군 수도 사업소와 고향 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를 통해 두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상호수도 분야 업무의 적극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기부는 김재호 예산군 수도과장과 김주환 홍성군 수도 사업소장이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운데

양 군의 유대감 강화와 업무 교류 증진,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뤄졌다.

앞으로도 양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향 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군은 내포 신도시와 군 경계 등 동일 생활권 내 지역 주민의 먹는 물

공급과 공공 하수 처리를 통한 공동 위생 향상을 위해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김재호 예산군 수도과장은 "고향 사랑 상호 기부를 토대로 양 군의 협력과 교류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고향 사랑 기부제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희기자

대전대 LINC3.0사업단 기술사업화 기업과 후속 산학협력 업무협약

참여기업과 간담회·후속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LINC 3.0 사업단(단장 이영환)은 지난 28일 '해화 All-SET 기술사업화'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회사와 기술사업화 수행 관련 간담회 및 후속 연구과제 발굴과 상호협력을

비 및 기자재 활용을 통한 개발 제품의 산업화 추진,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한다.

9개 참여 기업은 ▲주리운마이오(파제명 : 미세먼지 세정에 적합한, 저분자 퀘르세틴을 포함하는 틀렌저 조성물 개발), ▲주데비움(파제명 : 이뮨케어(Immuno-care) 복합제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주로템기술(파제명 : 인지 반응 시간 검사 및 훈련 장치 개발), 주리엔(파제명 : 의료 박데이터 관리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주이노더스(파제명 : IoT 무선 기반 건물기기(설문기, 냉·온풍기, 조명 등)자동제어 시스템 모듈 개발), ▲누구나(주)(파제명 : 재난안전 대비 수동통신 인터션 HW 사업화), ▲이엔유주(파제명 : 바이오헬스(교육용)복작의 메타버스 가상환경 구성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주네오디엠(파제명 : n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은 제품 기술개발), ▲주에이엠코리아(파제명 :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용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지원 플랫폼 개발 및 구축) 등을 12월까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대 LINC3.0사업단은 DC한방바이오, AI헬스케어, DC환경안전, 문화디자인기술 분야 ICC를 운영하면서 ICC 참여기업들과 산학공동기술개발과 19건, 기술사업화 18건, 올市长 및 출판 등으로 기술사업화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대 LINC3.0사업단 이영환 단장은 "기술사업화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학의 특화 ICC 분야 교원, 인적자원과 대학 보유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수성과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43억 원 규모 지급

충남 서산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확정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만 6,195명, 지급 면적은 22만 6천 786ha으로, 총금액은 약 443억 3천 4백만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 쌀, 밭, 조건 불리 직불제로 지원했던 사업이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된 것으로,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 대비 지급대상은 1,228명, 지급 면적은 282ha, 지급액은 4억 4천만 원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돼 지급대상 농기자와 농지가 확대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0.5ha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120만 원씩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위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서산=김정환기자



당진-서산 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과 상호발전의 의미 되새겨

당진시는 지난 28일, 시청 빌라루홀에서 김영명 부시장, 구상 서산시 부시장, 이종우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과 당진시와 서산시 농협지부장과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실시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당진과 서산 농·축협 임직원들이, 인근 자치단체 간 지역 상생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에 동참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으며, 당진 시와 서산 시 농·축협 임직원은 각 3,000만 원을 당진 시와 서산 시에 상호기부하며, 양 시의 발전을 응원했다.

기부식에 참여한 전철수 당진시지부장과 임진홍 서산시지부장은 "올해 처음 시 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국립한밭대 '2023 한집안 Fri-day' 성료

현직자 멘토링 통해 지역 우수 기업 알리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여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대학일자리본부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 월간 총 11개 지역기업의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한집안 Fri-day'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한집안 Fri-day는 국립한밭대가 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의 우수기업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프로그램은 먼저 지역 기업 현직자가 기업현황과 직무, 인재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체용정보, 직무역량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올해에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상반기인 주마다 5개 기업, 하반기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등 6개 기업, 총 11개 기업과 재학생 및 졸업생 120명이 참여했다.

김정환기자



동정

독거 어르신댁 방문



박경기 아산시장
=30일 오후 2시
선정010인주·읍
봉면의 독거 어르
신댁을 방문.

감사의 밤



오성환 당진시장
= 30일 오후 6시,
복지타운 대강당
에서 열리는
'2023년 당진시
노인복지관 자원
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밤'에 참석, 오
후 7시 30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
에서 열리는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
과 개설 20주년 기념공연 '오래된 여
정'에 참석.

시낭송 대회



기세로 태안군수
= 30일 오전 10시
태안문화예술회
관에서 열리는 '채
광석 시인 추모
전국 시낭송 대
회'에 참석.

간담회



김돈곤 청양군수
=30일 오전 10시
20분 국청 상황실
에서 열리는 주민
여보드 성과 보고
간담회에 참석.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대자연 우승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지난 28일, 군민체육관에서 10개 읍면 1,0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개최한 제1회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서 대치면 이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청양군 체육회(회장 한광석)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체육 경기를 통한 군내 어머니들의 친선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체육대회(홀라후프, 종합릴레이, 한궁, 제기차기, 바구니 공이고 돌아오기), 3부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여성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윤해정 씨 외 3명이 청양군수 표창, 정산면 윤순자 씨 외 1명이 청양군의회 의장 표창, 화성면 명현숙 씨가 국회의원 표창, 청양을 성수현 씨 외 2명이 청양군 체육회장 표창을 받았다.

2부 체육대회에서는 모든 종목에서 우수한 기량을 펼친 대치면(면장 김준호)이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청남면 준우승, 청양읍과 화성면이 공동 3위에 올랐다.

3부 노래자랑에서는 목면 김진희 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장평면 정종미 씨가 우수상, 청남면 황유미 씨와 남양면 김희숙 씨가 장려상, 청양읍 황정임 씨가 인기상을 각각 차지했다.

행사 중간중간 초대 가수 공연, 색소폰, 국악 공연 등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높였으며, 읍면 대항 노래자랑 시간에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등 열기로 가득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시 채소분야 평가회 열려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시범사업 성과·우수사업장 견학 등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8일, 소강의실 및 시범사업 현장에서 시범사업 대상자 및 관련 연구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채소분야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신기술 보급을 위해 추진된 쭈파 연중 생산 기반 조성 시범과 채소·화훼·스마트농업 분야 24개 사업 37개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우수사례로는 지역 특화작목인 썬채와 쭈파에 수경재배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이상기상, 연작장애 발생 증가로 인한 작물의 품질 저하, 고병화로 연중 생산의 어려움

등 농업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6개 소 0.5헥타르(ha)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해 연중 생산 체계를 확립했으며, 작년 대비 생산량은 130% 이상

증가하고 소득은 150% 이상 증가했으며 경영비는 25% 이상 감소했다.

특히, 올해 추진한 시범사업 중국내 육성 마늘 품종보급, 쭈파 연중 생산 수경 재배 기술, 땅기 스마트농업 확대 기술, 상추 연작장애 예방 수경재배 기술 시범 사업장을 참석자들과 함께 방문해 직접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속 가능한 당진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동절기 대학생 군정체험 참여자 모집

대학재학생 25명 모집···내년 1월 2일부터 4주간 군정참여

태안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대학생들에 군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2024년 동절기 군정체험'을 실시키로 하고 12월 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정체험은 대학생들이 사회생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돋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임금 책정안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며, 참여 대학생들은 본정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정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모집인원은 대학교 재학생 25명으로 공고일인 11월 27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태안군의 군정체험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이 아닌 대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자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인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인 대학생 순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을 방문하면 되며, 우편 접수(태안군 대인읍 군정로 1,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및 이메일 접수(skimghs@koreakn.go.kr)도 가능하다.

군은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군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하고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군정참여 대학생들은 내년 1월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행정부 보조와 더불어 관내 주요 사업지 및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도 실시하는 등 알찬 4주를 보낼 예정이다.

태안=김정한기자



'훈훈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 행복키움·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한파 대비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은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한파 대비를 위한 '훈훈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례관리 추진기관·종합복지관 등 9개 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위기기구 193세대에 난방용, 전기장판과 이불이 전달됐다.

김만섭 사회복지과장은 "추운 겨울에 한파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위기기구 발굴을 비롯해 공적 급여 신청 안내 및 민간 지원 연계, 통합사례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3 아산시 이·통장 한마음 대회

로 진행됐으며, 모범 이·통장 17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박경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아산시 발전과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17개 읍면동, 582명의 이·통장 여러분들"이라며 "모래알을 콘크리트처럼 끊을 수 있도록 지역의 리더로서 연결망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마을 주민들을 대변하면서 읍면동 행정과 주민들을 연결해 주면서 시정이 달라지는 구석구석까지 메워주고 있다"면서 "이·통장 여러분들의 역할을 생각해서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새겨 보는 자리였다"며, "이·통장들과 주민들이 협력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위해 상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진시는 앞으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당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당진합덕역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와 당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당진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이·통장 한마음 대회' 성료

아산시는 28일, 아산타미널웨딩홀에서 '2023년 아산시 이·통장 한마음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산시 이·통장연합회(회장 김영섭)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행정의 최前线에서 시민들과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경기 아산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기관·단체장들과 이·통장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 ▲개회식 ▲축사 및 시상 ▲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경기 아산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기관·단체장들과 이·통장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 ▲개회식 ▲축사 및 시상 ▲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당진시-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업무협약

당진합덕역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 기대



당진시는 지난 28일, 7층 접견실에서 오성환 시장, 이세형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철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철도 관광객에 대한 관광지 교통편의 제공 ▲각종 체험관광 시 관광에 필요한 제반 시설 적극 지원 ▲철도 관광 상품의 공동 홍보 및 모객 지원 등 당진 합덕역 개통과 관련해 당진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철도 관광객 유치를

정양군 정산면(면장 김기찬)이 30일까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자재 확보하고 제설기를 점검한다.

정산면은 21개 마을에 비치된 제설기를 일제 점검하고 취약도로 모래주머니 비치, 염화칼슘 사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한파 대비 요령을 알리고 폭설 시 내 집 앞과 점포 쓰기로 낙상사고 방지, 외출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김기찬 면장은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폭설이나 한파가 잦은 겨울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예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정산면 폭설 대비 제설 자재 확보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기찬)이 30일까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자재 확보하고 제설기를 점검한다.

정산면은 21개 마을에 비치된 제설기를 일제 점검하고 취약도로 모래주머니 비치, 염화칼슘 사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한파 대비 요령을 알리고 폭설 시 내 집 앞과 점포 쓰기로 낙상사고 방지, 외출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김기찬 면장은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폭설이나 한파가 잦은 겨울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예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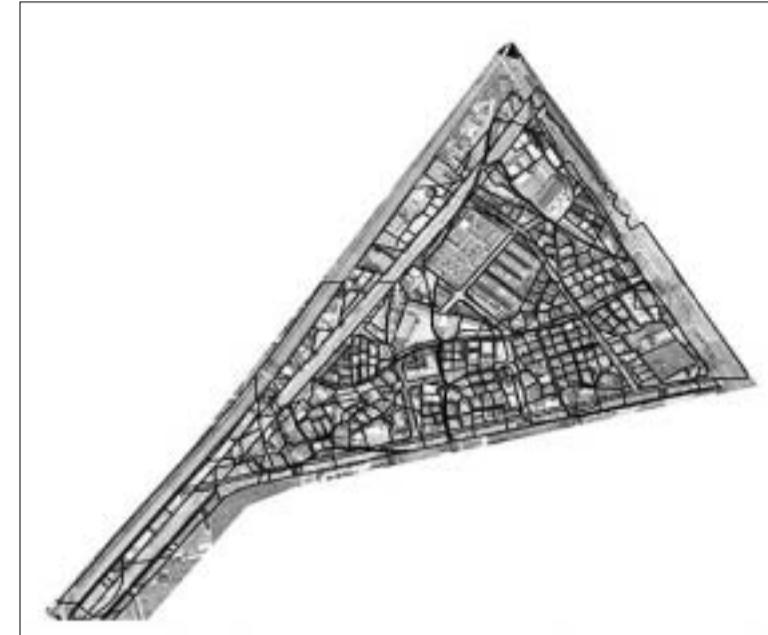
드론 활용해 내년 지적재조사 '면밀히'

논산시 드론TF팀, 관내 7개 지구 드론으로 들여다본 정사영상 제작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드론 기술을 활용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7개 지구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했다. 정사영상은 기하학적 왜곡과 경사 왜곡이 제거된 정 시각정보 기록물을 말한다.

시는 지난 11월 초부터 토지정보과 드론TF팀을 중심으로 대교2지구·부정2지구·취암1지구·남교1지구·염천1지구·중양2지구·태평1지구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토지현황 조사 및 경계합의·재조사 사업 전후 경계선 비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영상접합 프로그램으로 수천 장



계룡시 저소득층 두텁게 보호 나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열어 취약계층 보호대책 논의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 주재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열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총 11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계룡시 의료급여대상자는 460여 명으로, 올해 총 10회의 걸쳐 진행된 의료급여심의를 통해 188건의 의료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 및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서 열린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4기구 7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기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심의한 주요안건은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기피 인정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사 등이다.

이응우 시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누구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밤길·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양성평등문화확산·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성과 인정받아

서천군이 여성기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기족부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여성기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5개년 사업 계획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 제도화 실적, 비전,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고 있다.

서천군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의식 제고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 구현되는 생활밀착형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군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천군'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전 부서의 행정 역량을 모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민관이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위촉하여 ▲지역 내 불편사항 모니터링 ▲여성강화 교육 ▲여성 안전 밤길회의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또한, 민간·기업체·전문가·행정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여성일자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여성 수요에 맞춰 '서천형 취업 모델'을 구축해 ▲찾아가는 양성평등 마을 강사를 위촉·운영하는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성공 및 소득 창출에도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기웅 군수는 "성평등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여성과 가족뿐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라 추후 여성기족부와 협약체결을 통해 여성·아동 안심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마련 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서천군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국가 컨트롤타워 기대된다

실증연구센터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혼 이주여성 통·번역 자조모임 결성

계룡시, 이주여성 지역사회 정착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룡시기족센터(센터장 우정민)는 다문화기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돋구고자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통·번역봉사활동 자조모임을 결성했다고 전했다.

통·번역 자조모임은 일본,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총 7개 국가의 결혼이주여성 11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멘토·멘티 역할을 통해 한국

어가 서문초기입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우정민 센터장은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2023 송년음악회 열려

빅마마·부활·김민석·김현수·논산시립합창단 등 한자리에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논산시민을 위해 서로 서로를 격려하는 '2023 송년음악회'를 오는 12월 20일 오후 7시에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송년음악회에는 인기 가수 빅마마·부활은 물론 음악예술 프로그램 '팬텀싱어' JTBC 출신

김민석·김현수·정필립 등 성악가들과 논산시립합창단이 출연한다.

송년음악회 예매는 인터파크티켓 홈페이지(ticket.interpark.com)에서 이뤄진다.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예매가 시작되며, 1층 객석은 2만 원, 2층 객석은 1만 원에 판매된다.

논산시민은 50% 할인된 가격에 예매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감성으로 꽉 찬 즐거운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굴지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꾸미는 2023 송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041-746-5664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동정

유공자 표창 수여



이응우 계룡시장=30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 계룡군 군민 대상 유공자 표창 수여.

석성학교 기로연



박정현 부여군수=30일 오전 10시 석성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석성학교 기로연에 참석.

워크숍



김기웅 서천군수=30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열리는 목요현안회의에 참석, 오전 10시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서천군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민·관 학술워크숍에 참석, 오후 1시 30분 판교면 현암리 149-9에서 열리는 [판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생기발랄 어울림센터 준공식에 참석, 오후 3시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열리는 명사 초청 더 행복한 들풍경에 참석, 오후 4시 문현사색원 조성현장에서 열리는 문현사색원 목은학당 수련관 사랑식에 참석.



부여군 근로자·군민의 안전권

보장 위한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군민과 근로자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군은 지난 28일 군 공무원·위수탁기관·민간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문화화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 근로자 및 군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실무자 등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사람과 안전 기술지도법인의 한정현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관련 법령 이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 안내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대처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 및 군민 단 한 명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 제로 부여 만들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중대재해예방 안전 계획 수립, 안전·보건 교육 및 민간사업장 홍보 등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노력우…

광고문의

(042)538-3030

정

SNS 서포터즈 밸대식



최원철 공주시장=30일 오전 10시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리는 공주시 SNS 서포터즈 밸대식에 참석.

제주감귤 박람회 공식 방문



김동일 보령시장=30일 오전 10시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제주감귤 박람회 공식 방문.

서산봉사단이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이완섭 서산시장=30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서산봉사단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참석, 오전 11시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참석, 오후 2시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6.5 전쟁 무공훈장 유족 전수식 참석, 오후 7시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레카토색소 평양상을 제13회 정기연주회 참석.

금산군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박범인 금산군수=30일 오전 10시 금산읍 게이트볼장에서 열리는 제9회 금산군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

제4차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근)는 지난 28일, 공주시 보건소에서 '2023년 제4차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주시를 비롯해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공주의료원, 공주시 보건소, 국립공주병원, 맑은마음병원,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4차 간담회에서는 2023년 정신건강 위기 개입 현황과 주요 사례 공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 시 각 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 대응능력 점검, 개선 방향 모색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 상황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오근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를 통해 관내 정신건강 응급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공주시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사업, 생명존중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 및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41-852-1094)로 연락하거나, 누리집 (www.gjcmhc.or.kr)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1577-0199)로 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전 군민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박차

금산군, 19개 의료기관서 진행 ·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 가능



금산군은 전 군민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이번 무료 접종은 내년 3월 31일 까지 진행되며 유행 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된 XBB.15 단계 백신이 쓰인다. 11세 이하 접종 백신은 각 연령대에 맞춘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관내 19개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XBB.15 단계 백신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1회만 받으면 된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도 가능하다.

금산군 전 군민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041-750-442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은 이번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한다"며 "겨울철 코로나19·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개인위생 수칙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서산시, 202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전국 1위 선정

우수사례 공모전 기관 대상 · 개인 부문 우수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충남 서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기관 부문(대상)과 개인 부문(우수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사업

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시상식은 29일 서울특별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3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진행됐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대상자 발굴 노력, 민간 병의원 협력, 업무 효율화 사례, 질환 개선 등 성과 달성을

례 부문으로 진행됐다.

시는 원격화상 진료사업으로 주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업운영체계 효율화 사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은 주민의 질환 증증화 예방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자 발굴 노력사례 부문에

서 황민혜 주부관이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2019년부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랜 노동과 만성질환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왔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66곳 최종 선정

5년 연속 맛집 선정된 3개소 '명예의 전당'으로 선정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맛집 빨굴과 유흥을 위해 2024년 으뜸공주맛집을 선정하고 11월 맛집 표지판을 교부했다.

지정 신청(주천) 업소와 기존 으뜸공주맛집 8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와 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66개소를 맛집으로 최종 선정했다.

현장 심사는 음식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업소별로 직접 방문해 맛과 서비스, 식재료, 위생 등 평가를 시행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맛집은 13개소로, 기존 맛집 중 14개소가 재선정되지 않으면서 올해 맛집 67개

소 대비 1개소 감소했다.

시는 선정된 맛집 중 5년 연속 맛집에 선정되고 현장 심사 점수가 우수한 3개소(농원, 신야촌주, 오리랑닭이탕)를 명예의 전당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소에는 향후 2년간 맛집 재심사를 면제하고 표지판도 '명예의 전당' 문구를 넣어 별도로 제작해 교부했다.

임승수 보건정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으뜸공주맛집에 대해 시청 누리집과 시정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관광음식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시체육회,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해단식 및 보령시 체육인의 밤 개최

보령시체육회(회장 강철호)는 지난 28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해단식 및 보령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하여 박상도 의장, 강철호 회장, 회원총동체장 및 읍면동체육회장, 충청남도체육회 감독·코치와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해단식

에서는 유공자 공적에 따라 표창과 포상이 이루어졌다. 올해의 모범단체상은 보령시육상연맹과 보령시탁구협회, 감독상은 보령시역도연맹 김예림, 보령시축구협회 백승필 감독, 올해의 선수상은 보령시역도연맹 김도형, 보령시육상연맹 김태식, 보령시청 요트팀 이태훈, 보령시청 복싱팀 김동희 선수가 선정됐다.

또한 충청남도체육대회 상위성

적에 입상한 보령시유도회, 보령시궁도협회에는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비채집종목으로 상위 성적을 기록한 보령시페더글라이딩협회, 보령시자전거연맹, 보령시체조협회에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특히 보령 출신으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구FC 황재원 선수와 요네스 배드민턴선수단 진용 선수에게는 보령을 빛낸

스포츠인상을 수여했다.

강철호 회장은 "보령시가 해양관광 명품스포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동일 시장과 박상도 의장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보령시 체육발전을 위해 현신·봉사하는 회원종목단체장들과 감독·코치,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신관동 자율방재단, 위험목 제거

지역민 안전 위한 값진 봉사활동



공주시 신관동 자율방재단(단장 김윤호)은 최근 겨울철 대설이나 강풍 등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목 제거 활동을 실시했다.

자율방재단원들은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해 그동안 신관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위험목을 정비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윤호 자율방재단장은 "이번 위험목 제거가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각종 재해의 사전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신관동장은 "내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 위험 요인을 지속해서 찾아 해소하는 자율방재단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 인지면 김선신씨

농업인교육 유공 도시자 표창 수상



▲ 도시자 표장을 수상한 인지면 생활개선회 김선신회장 모습.

지난 28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에서 김선신 생활개선회장이 농업인교육 유공 도시자 표장을 수상했다.

김선신 회장은 2019년부터 인지면 생활개선회 회장으로서 여성농업인 권리행장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민을 위한 나눔봉사에도 솔신수법해 왔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수시로 시간을 내어 노인 및 어려운 가정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다양한 교육 시·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개선회 활성화 등 농업발전에 이바지 했다.

김선신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군, 연말 지역사랑 나눔 활기

금산군의 연말 지역사랑 나눔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빛종합건설(주), 금산인삼로티리클럽, 금산우체국은 지난 28일 성금 및 후원품 전달 및 나눔 행사 등을 전개했다.

한빛종합건설(주) 김기수 대표는 이날 금산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6년에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해 이번 기탁을 포함해 총 1000만 원의 성금을 군에 전달했다.

같은 날 국제로티리 3680지구 11지역 금산인삼로티리클럽(회장 최용규)은 지난 11일 치러진 이웃사랑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약 2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선물을 마련해 진산면 동그리마지역 이동센터 및 신명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총 59명에게 전달했다.

특히 대상 어린이에게 미리 가지고 싶어 하는 선물을 조사해 맞춤형 선물 선물을 준비, 더 큰 기쁨을 선사했다.

금산우체국(국장 김경희)도 이날 후원품 기탁에 동참해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금산기족센터에 김 50박스를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 사회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후원품은 금산군기족센터를 통해 대상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한빛종합건설(주), 금산인삼로티리클럽, 금산우체국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지원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백성현 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국비확보 총력

국토교통부 방문해 도시재생 · 도로 확포장 ·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원 관련 건의

백성현 논산시장이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원 · 도로 확포장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 현안에 관해 논의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백 시장은 이날 원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논산의 도시 개발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소개한 후 시민 피해에 끊는 지방행정을 구현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측의 뒷받침이 절실히 전달했다.

백 시장은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 · 일자리 창출 · 정주인구 증가 등을 희망하고 있는 전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국방국가산업단관련 공식적 사업 승인이 12월 초 이뤄질 전망임을 알리며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 러면서 “전국 최초의 전력지원 체계 산업단지로,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한 축이 될 국방국가산업단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토부 측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지도 68호 도로 확포장에 관한 논의도 오고 갔다. 국지도 68호는 논산과 금신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로, 논산시는 도로 선행을 개선하고 폭을 넓혀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구체적 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백 시



장은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다각적 교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행 여건이 해쳐야 한다”며 설계비 지원이 요구됨을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도 전했다. 논산시는 낙후된 유휴시설을 문화 · 예술공간으로 만들어 도시경관을 개선하

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광인프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백 시장은 강경을 비롯한 여러 관내 명소들과 연계해 도시재생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원 장관은 동석한 관계 실무진과 실현 가능성 및 정책적 효과 등을 타진하며 향후 논산시장에 관심을 두고 견의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한편, 논산시는 국비확보 움직임에 속도를 올리며 실증 운용에 숨통을 트우고 있다. 논산시 예산 부서별 자료를 살펴보면, 국도비 예산이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도 전체 예산액이 전년 대비 1239억 원(13.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 달성을 시민 숙원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 국비확보 노력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성구기자

KT&G, 청년창업가 발굴 · 육성

‘상상스타트업캠프’ 8기 모집

KT&G 사장 백복인(가)가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KT&G 상상스타트업캠프’ 8기 참가자를 오는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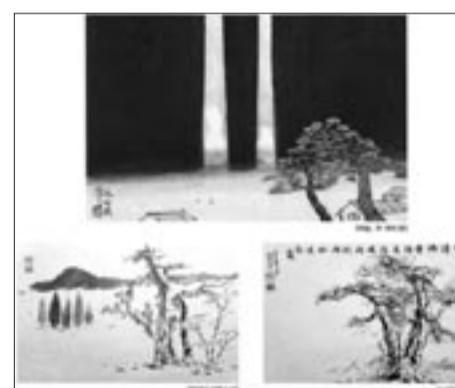
‘상상스타트업캠프’는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사회혁신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전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혁신 창업가로서 발돋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상스타트업캠프’ 8기는 내달 4일 3년 이내 초기 창업팀 대상의 스타트 트랙(Start Track) 모집을 시작으로, 10년 이내 시드단계 창업 팀 대상의 그로스 트랙(Growth Track), 글로벌 진출 팀 대상의 글로벌 트랙(Global Track) 등 총 3개 과정이 운영된다.

KT&G는 교육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우수 팀들에게는 상금을 비롯해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청년창업 전용 공간인 ‘KT&G 상상 플래닛’ 입주 지원과 투자 유치 연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상상스타트업캠프’ 홈페이지(<https://sangangstartcamp.com/apply>)에서 할 수 있다. 시전설명회와 모집 일정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사항 또한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복기자



‘총무공 소나무 아래를 걷다’

박내후 초대전 개최

아산시 염치읍의 자랑인 작가 박내후의 초대전이 오는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현충사 이어순기 기념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소나무를 주제로 해 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영동사에 방문하면 누구나 소나무의 솔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을 사랑했던 작가 박내후는 그의 그림 인생 40년 중 20년을 염치읍에 소재한 ‘방현재’(고개 너머 꽃 피는 집)에서 그림을 그렸다.

소나무를 좋아하던 박작가는 현충사 곁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현충사를 자주 찾았으며 현충사 소나무는 그의 작품 소재로 자주 사용됐다.

아산=리량주기자



(제)보령축제관광재단 - 충남도립대학교
 K·뷰티·치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 일시 | 2023. 11. 29.(수) 11:00 | 장소 |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공주시, 2023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최우수상’ 수상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3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심사에서 ‘내마음 봄, 키오스크로 마음살피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전대 LINC30사업단, 식품제조산학협력협의회 성료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LINC30사업단은 29일 중구 은행동 애트2 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제2회 식품제조산학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대학교 식품제조 기족회사와 대학 관계자들이 산학협력 증진과 식품제조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종충남대 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 미래의학연구원 연구지원본부는 28일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임상시험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 임상약리학회 최성준 회장을 초청해 원내 임상연구자를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연구역량강화를 주제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밭대 ‘MZ세대 학습자 중심 공감 교수법’ 세미나 개최

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28일 경상학관 세미나실에서 ‘MZ세대 맞춤형 공감 교수법 설계와 실제’를 주제로 교수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김주리가 주최한 이번 교수법 세미나는 코칭 전문가인 ‘영교창’의 백명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온양2동 행복기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실시

아산시 온양2동 행복기금추진단(동장 유혜조, 단장 강준구)이 지난 28일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안전한 겨울나기, 대전 대덕구와 환경부가 함께해요”

환경부 · 5개 기관 및 기업, 대덕구에 한파 취약계층 방한 물품 기탁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29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기후 · 환경 네트워크(상임대표 이우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본부장 김용국), 우리은행(대전 충청남부 영업본부장 송용섭), 제주개발공사(기획이사 송형관), 쿠그린웨이브(대표 최동민) 등 5개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한파에 취약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방한 물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날 ▲단열 에어캡

▲문풍지 ▲귀미개 ▲목도리 ▲수면역 말 ▲생수 ▲천환경 이불 등을 기탁받았으며, 구는 한파 취약계층 100가구에 한파 대응 요령 및 건강 관리 수칙 등의 안내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최충규 대덕구청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신탄진동 일원의 결빙 취약지를 방문했다.

대덕구 신탄진동 낭경마을 일원은 보차도가 미분리돼 있고 금경사로 인해 많

김태선기자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들고 탄소중립 실천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신평초 학부모회는 신평면 공유 주방에서 오전 11시부터 김하영 영양사의 주도로 ‘저탄소 쿠킹 클래스’를 열고 국내 산식재료와 제철 식품, 친환경 · 저탄소 인증 식품으로 배추말이 전골, 오징어 샐러드, 크림 파스타와 초코 잡쌀 케이크로 구성된 식단을 선보였다.

학부모회 장은미 회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먹거리가 중요하다.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지원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탁에 올라 음식물 쓰레기 되는 과정까지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최소화한 식단을 뜻하며, 과일과 콩류 그리고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육류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홍보물을 배포와 ‘저탄소 식단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신평초등학교에 ‘탄소중립 수호천사 포토존’을 설치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회원들은 손 팻말에 ▲텔레비전 시간 줄이기 ▲비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송병배기자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 실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 신평초 학부모회 저탄소 쿠킹 클래스 수업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9일, 신평면 주민자치회, 신평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신평초등학교, 신평면 공유주방에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저탄소 식단은 식품의 생산부터 우리 식

연립을 직접 배달하는 등 전체 11가구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3300장의 연탄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서는 업무 중 탈진한 80대 어르신을 발견해 목숨을 구한 대전둔산우체국 김경태 집배원, 다른 지역에서 길 잃은 치매노인을 발견하고 귀거를 도와준 충주우체국 박정호 집배원, 배달 중 바닥에 떨어진 이불 빨래를 정리해 준 당진우체국 탁현수 집배원, 푸드로 쓰러진 나무를 정리해 차량 통행에 도

연탄김치

충청우정청, 연탄배달 봉사 ‘따뜻한 온기 전해’ 선행 집배원 5명도 참여



충청우정청 허원석 청장과 직원 등 22명은 겨울철을 맞아 29일 대전 동구 일원에서 난방 취약계층 4가구에 대해 1200장의



서구 지원봉사센터, 시장기독 김장나눔 전달식 개최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영희)는 29일 구청 광장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장기독 김장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김장 김치(10kg) 120박스를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는 행사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추진됐다.



남서울대학교-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업무협약식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는 28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별전본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지역농산물 후원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별전본부는 지난 28일, 순성면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사과 총 500kg(5kg, 100상자), 500만 원 상당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당진시 관내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청양군 귀농귀촌협의회, 장학금 1,100여만원 기탁 청양군 귀농귀촌협의회(회장 박상현, 이하 협의회)는 지난 28일, 청양시립인재 육성장학회(01 사장 김돈곤)에 장학금 1,134만 1,354원을 맡겼다.



굴다리영어조합법인, 온양2동 빈찬나눔 사업에 적극 후원 지난 27일, 굴다리영어조합법인(대표 김경배·고삼숙)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강준구)에 김장(새우젓 23kg, 황석어젓 23kg, 멸치액젓 20kg)을 후원했다.



대전세종상의, 회학연과 지역 기업 기술력 증진 '기술로 상담사전 설명회'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와 세종상공의회(회장 이우식),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영국)은 지난 28일 오후 대전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술로 해결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주)그린방사선, (주)동방아그로 등 6개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로 상담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산시, 관내 3개 기관과 교통단체 봉사자 등 총 18명의 표창

제20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유공 시상

충남 서산시는 지난 28일 제20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유공 시상식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은 제20회 서산해미읍성 축제에서 각자 맡은 최선을 다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등 관내 3개 기관과 교통단체 봉사자들 등 총 18명의 표창자가 참석했다.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충청도 각지의 지역민이 함께 쌓아올린 성이라는 공동체적 가치와 조선시대 충청병마절도사령의 역할



을 했던 서산해미읍성을 기반으로 충청과 내포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살린 축제이다.

올해 서산해미읍성축제는 특별히 20주년을 맞아 600년 이상

된 고성(古城)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고성문화축제'로의 변화에 성공해 총 25만 1천여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서산=김정한기자



예산군 추사기념관 '추사'

예찬' 특별기획전 성료

예산군 추사기념관은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69일간 추사기념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추사 예찬-추사 유물 개인소장가 특별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여덟 명의 개인 소장가가 조건 없는 공유로 관람객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을 포함한 추사 선생의 편지, 추사 소봉래 학인(小蓬萊學人) 입장, 석파 이하 응의 북린도 등 27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박제기자

NH농협 공주시지부,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이날 캠페인은 영농철에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모아 수거하고 영농부산물을 정리하는 등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년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안종진 지부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가꾸기에 동참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을 알리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환경정화활동에 농협 임직원이 함께 적극 동참해 건강한 농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원들과 함께 산불'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아마존웹서비스(AWS), 협약 체결

디지털 물산업 육성 위해 손잡는다



'wateRound'에 협력하는 기업들은 뛰어난 안정성과 빠른 확장성을 가진 AWS 클라우드를 지원받게 되어 초기 솔루션(SaaS)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AWS 클라우드 사용을 통해 기업들은 IT 인프리를 구축·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하였을 경우 AWS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여 전 세계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WS에서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대 IT 콘퍼런스인 'Re:Invent'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솔루션 개발부터 해외 판로까지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WS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 물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SaaS 솔루션을 개발하고, 나아가 국내 디지털 물산업 생태계와 SaaS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민관이 협력하는 디지털 물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 국내 물기업 육성을 위해 11월 28일 아마존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 코리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WS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인프라 기술부터 데이터 레이크 및 알고리즘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하여 AWS와 상호협력하여 기술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워터라운드'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양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공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워터라운드(wateRound)'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디지털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워터라운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AWS 클라우드 크레딧을 지원하고,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AWS 교육 프로그램, AWS 마켓플레이스 등록 등에 대하여 AWS와 상호협력하여 지원한다.

이를 통해 '워터라운드'

'NSCA 미국체력관리협회' 자격증 취득

우송정보대학 자율전공학부 운동재활 전공

우송정보대학(총장 이달영) 자율전공학부 운동재활전공 합승법, 이 수현 학생이 미국 NSCA(National Strength and Conditioning Association) 웨이트 트레이닝 코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수를 들고 있다. 우송정보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교육 및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송정보대학 자율전공학부 운동재활전공 학생들은 2023년

NSCA 웨이트 트레이닝 코치증 취득률은 75% 최고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운동재활전공 학생들은 현장에서 인정받는 선수트레이너, 운동재활전문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국내, 국외 자격시험에 지속적으로 응시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입증해주는 인증 제도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내부통제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흥원은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화하기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해 2020년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ISO37301)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에는 ISO37301 인증을 통해 기관의 윤리경영시스템이 국제적인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남태현 원장은 "이번 ISO37301 인증 획득을 통해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규범 준수 경영을 통해 기관의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당진시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이·미용봉사실시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28일, 대한미용사회 충남 당진지부 '벗사랑 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장애인 등 40명을 대상으로 이·미용봉사를 실시했다.

기고



김성찬 예산소방서장

겨울철 주택화재,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수 없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화재의 경우 발생 즉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 가정에서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난방기구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구 주변에 가연물을 방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뺨래를 건조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화재 위험요소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말고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정상동작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출 전 가스레인

지, 전기코드 등을 확인하여 화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 특히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음식이나, 튀김 요리 및 빵 래를 삶는 도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넷째, 부분별한 소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쓰레기나 농업부산물 소각은 비단에 날려 주택으로 옮겨 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할 경우는 비단이 없는 날 안전한 조치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 시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며, 소각 후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화재예방은 소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서 소화기

를 비치하는 것이다.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독 주택의 경우 화재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군민 스스로가 화재로부터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아 우리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인식한 생각을 하는 사이 무방비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촌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대응하기란 쉽지가 않다.

'처음에는 우리 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화재로부터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사설

디지털 정부 명성 먹칠한 전산망 장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묘한 상황이 종착된 것이다.

디지털 정부 대외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산망 오류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누구라도 피해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산망 장애의 원인을 분석한 보도자료가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디지털 정부 대외 홍보에만 주력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전자정부 홍보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산 시스템에 대한 유지와 보수 예산은 줄어들고 홍보 예산이 늘어난 점이다. 이번 전산망 장애가 전자정부 시스템 유지에 큰 경고가 된 셈이다.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IT 강국, 디지털 정부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가지고 있다. 디지털 정부의 안정화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손발 안 맞는 대출 정책, '빚투' '영끌족' 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가 이자 부담 경감책을 권고하고 나섰으나 금융권은 오히려 대출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손발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마치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상생금융 의지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정부·여당은 이에 주담대 인하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여권의 금리 인하 주문은 전방위적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부실 대출 리스크를 이유로 저지부동이다. 여권의 압력이 거세지자, 상단은 고정한 채 일반인 이용이 사설상 불가능한 최하단 금리만 짚끔' 조정했다. 특히 주택담보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내년부터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민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담대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그만이지만 저렴 요즘처럼 바닥인 상황에서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버블 사태를 겪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우리와는 상황

이 다르다. 일본은 저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속 중이다. 지금도 10년 이상 장기 1% 고정금리로 끌어 쓸 수 있는 상품이 즐비하다. 중국도 중앙은행(인민은행)의 주도 아래 시중은행들은 대출이 몰리는 연말·연초에 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 가지수가 보합세에 접어드는 등 실시간으로 보여준 시장의 반응은 뜻겁다.

가계대출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금융권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을 거둬 성과급 잔치까지 벌일 수 있었던 근거는 정부의 고금리 정책이었다. 유리할 땐 정부 정책에 편승하고 출혈이 예상될 때는 반기를 드는 모양새는 모순적이면서 이기적일 수 있다. 당장의 손해와 위험 부담이 우려되더라도 정부와 계를 맞추면서 통일된 시그널을 주는 일은 시장 안정에 절대적이다. 혼란 속에 시장이 무너지면 금융업이 아니라 어떤 산업도 유지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신건강 위해 부처 협력 나서

11개 부처 법정부 마음건강 협의체 발족…심리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처음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과 함께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부 마음건강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11개 기관은 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외교부, 법무부(교정본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등이다.

협의체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 및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축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 공무원 심리지원 협력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관별 심리재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개선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대응 공무원 신속 지원·협력체계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처음 개최된 '법정부 마음건강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교원 마음건강 지원 상담, 고용노동부의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전문 상담 및 진료비 지원 등 각 학교 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 현정	회장	김 성구	논설위원	김우영·김성식·김종복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 5000원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겨울철 주택화재,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수 없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화재의 경우 발생 즉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 가정에서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난방기구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구 주변에 가연물을 방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뺨래를 건조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화재 위험요소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말고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정상동작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출 전 가스레인

를 비치하는 것이다.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독 주택의 경우 화재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군민 스스로가 화재로부터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아 우리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인식한 생각을 하는 사이 무방비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촌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대응하기란 쉽지가 않다.

'처음에는 우리 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화재로부터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있다. 첫 눈이 내리고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겨울철은 각종 난방기구 사용량이 많아질 뿐더러 건조한 날씨로 인해 주택 화재 발생이 잦아지는 시기이다. 뉴스에서 주택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홍경석의 사뿐사뿐 사자성어



홍경석

(기자·대전중구문화인협회/장편소설·평행선 저자)

애국애족(愛國愛族)

히 활동하고 있는 시인과 시 낭송가들도 대거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겨레 시인 성재경은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성재경 시인은 원래 공무원이었다.

그러다가 시가 좋아서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며 낭만과 감성을 노래하는 서정시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명도를 높였다. 이어 여러 권의 시집을 출판하면서 시단에서 인정을 받고 국제 펜클럽 회원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천안을 방문하여 유관순 열사를 접하고 나서 시인의 생애는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성재경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관순 열사를 접하는 순간, 감동과 존경의 카테고리가 내 심장에 와서 꽂들어박혔다'고 했다.

이후 성 시인은 서정시를 버리고, 유관순 열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리와 민족을 위해 현신한 선열들을 기리는 애국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관순 열사를 열렬히 기리고, 그 정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던 중 뜻에 갈아하는 문인들, 특히 천안 지역 인사들과 힘을 합하여 유관순 애국 시단 '을 만들어 매월 1일 유관순 열사가 만세 운동을 펼친 병천 아래 내 독립 만세 운동 기념공원에서 '애국 시 낭송회'를 개최하여 현재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성재경 시인은 충남 천안을 자신으로 하여금 애국 시를 쓰는 겨레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새로운 고향이라고 말하며 지금도 거의 빠짐없이 시 낭송회에 참여하여 유관순 열사와 천안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유관순을 위한 서시>에서 유관순 열사를 = "노래를 위해 유관순을 부르지 말고 유관순을 위해서 노래를 불려 주오/ 영화를 위해서 유관순을 만들지 말고 유관순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 주오/ 땅속 깊이 스미기 위해서는 유관순 품에 뜨겁게 파고들어야 하고/ 하늘 높이 솟기 위해서는 유관순 하늘 손 아프게 잡아야 한다(후락)" =라고 흥모했다.

<겨레 시인> 성주경 윤동주 시집 출판기념회 & 신 독립군 노벨 문학상 추진위 발대식>은 내빈 소개, 축사, 축하 메시지, 윤동주 시인과 성재경 시인 소개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다음으로는 신 독립군 노벨 문학상 발대 선포와 답사 및 현장 시 낭송, 기타 애국 시 낭송과 무용 가요 공연이 꾀려를 물었다. 뜻깊은 이 자리에는 초등학생들도 다수 참여하여 애국애족(愛國愛族)에는 남녀 노소가 따로 없음을 새삼 각인시켜 주었다.

"천안은 애국 시를 쓰는 겨레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고향"

유관순 열사가 있는 날에는 그의 모든 조상들보다 더욱 귀하고 숭고하고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에 순종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 지역에서 활발

시의 향기

김성식 시인의 '그리움의 강가에서'



김성식

(시인·포럼·국제기술대학 예술문화학부 교수)

맑고 바른 사회를 위하여

함께 한지 벌써 어언 몇 년이란가

명예가 주어지지 않아도

희망과 꿈이 있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맑은

나는 이 길을 가련다

맑고 바른 사회를 위하여

세대를 위하여 푸르면 이 길을 간다

아암 가야지

사단법인 부패방지공직 공익비리신고본부

뉘가 알아주지 않아도

맑고 바른 사회를 위하여!

▶ 시작메모

조국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그 밖의 모든 조상들보다 더욱 귀하고 숭고하고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에 순종해야 한다.

시의 향기

고안나 시인의 '詩냇물'

대전투데이

16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대전투데이



CAFE 350



대전 서구 만년로65번길 23 1층 T: 042-482-3505